

前시장·농협 조합장·세무사 출신... '나주 토박이' 3파전

7·30 재보선 누가 뛰나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배기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나주·화순지역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종우 전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각각 공천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강백수 세무사가 출마해 선거전은 3파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모두 나주 출신이다.

이번 재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새정치연합의 경선 결과였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적용될 것인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공천전에는 애초 9명의 후보가 뛰어들이었으나 컷오프를 거쳐 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박선원·송영오·홍기훈 예비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결국 경선은 신 전 시장과 최인기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펼쳐졌다.

지난 6일 '국민여론조사 50%' 선거인단 투표 50%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에서는

신 전 시장이 53%를 얻어 47%를 획득한 최 전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신 전 시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44.6%를 얻어 55.4%를 획득한 최 전 의원에게 뒤졌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61.3%를 얻어 38.7%를 획득한 최 전 의원을 크게 앞서면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됐다.

신 후보는 고려대 재학시절인 지난 1985년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투쟁을 주도해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낙향해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두 차례의 전남도 의원을 거쳐 무소속으로 민선 3, 4기 나주시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주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특별사면과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을 되찾아 이번 재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종우 "농업전문가...특정당 독점시대 이제 끝내야"

신정훈, 새정치연합 경선 '거물' 최인기 前의원 제압

강백수, "연고·패거리 공천 등 구태정치 심판 해야"



신 후보는 경선 승리 후 후보 수락연설에서 "인간중심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나주·화순을 광주가 부럽지 않은 호남의 신 중심 생활권으로 변화시켜 내겠다"며 "나주·화순을 바꿔 호남을 바꾸고, 호남을 바꿔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은 받은 김종우 후보는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을 8년 동안

역임한 농업운동가다. 그는 지난 1995년 전남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2002년 나주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 후보는 "농민운동을 해온 원조 농민 운동가로서 40여 년간 지역 국회의원을 독점해온 특정 당의 부패와 횡포에 맞서기 위해 출마했다"며 "집권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나주 화순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조합을 이끌어온 진짜 농업전문가"라며 "180마지기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협개혁과 함께 농도 나주 화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년간 농민운동을 하면서 힘이 약하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민주당과 연합해 활동을 이어왔다"며 "하지만, 지역을 독점해온 민주당의 실상을 알고 5년 전 새누리당에 입당한 만큼 이제 나주·화순사 특정 당 독점시대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 남평 출신으로 그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강백수 세무사는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세무법인 인경 대표세무사로 활동해 왔다. 지난 2010년엔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2년엔 정통민주당 옷을 입고 국회의원 선거(부천 소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강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교육·복지·일자리창출·의료문제·노후문제와 나주·화순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이제는 아성이 선명한 사람, 국정의 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경쟁력 있는 현장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고 공천, 불공정 공천, 패거리정치, 부패정치는 낡은 정치이고 구태정치"라며 "나주·화순 지역민이 힘을 모아 이제 구태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정당당한 승부 펼치겠다"

광주·전남 재보선 후보들 선거사무실 속속 개소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17일)을 앞둔 15일 각 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권은희 후보와 순천·곡성 서갑원 후보, 담양·장성·함평·영광 이개호 후보 등 3명은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권 후보는 특히 이날 '무결점 선거운동'을 다짐한 뒤 새누리당의 잇따른 공세에 대해 "과거에도 그랬듯이 새누리당이 저를 선거운동의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지역민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유세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닌 도농과 자전거를 통해 광산을 지역을 돌고, 주민들의 생활속으로 들어가는 발로 뛰는 선거를 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인 만큼 선거 운동은 법정 선거비용의 50%에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서갑원(순천·곡성) 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나쁜 정부"라며 "이번 선거로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도 이날 오후 영광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와 주

승용 사무총장, 박지원·추미애·박혜자·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개소식에서 "선거기간 동안 지역 서민들의 삶과 소외 이웃들의 애환을 체험하는 '가슴 따뜻한 선거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래시장을 비롯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각계 각종 주민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나주·화순)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 오후 화순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에는 안철수 공동대표와 우원식 최고위원, 박지원·설훈·강기정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을 선거구의 정의당 문정은 후보도 15일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노동·여성·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송환기 새누리당 광산을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는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장덕농 농협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도부를 비롯한 유수택 전 최고위원, 김운세 광주시장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특히 송 후보와 정치활동 등을 함께 해온 정몽준 전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정실을 방문한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들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 사실상 무산

수사권 부여 등 이견 여야 합의 불발 유가족, 350만명 서명용지 국회 전달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에 본격적인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협의가 쉬운 부분부터 사전에 교통신리를 해둬으로써 전체 조문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여명의 서명용지를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도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근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할 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형사사법 근간을 훼손한다는 건 허용받던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에 맞서 새누리당 운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원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은 진실합의를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SIEMENS
BNC빌딩
수협
상무점

지멘스 상무점
약형빌딩5층 501호
동행(문신지점)
아바폴드지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